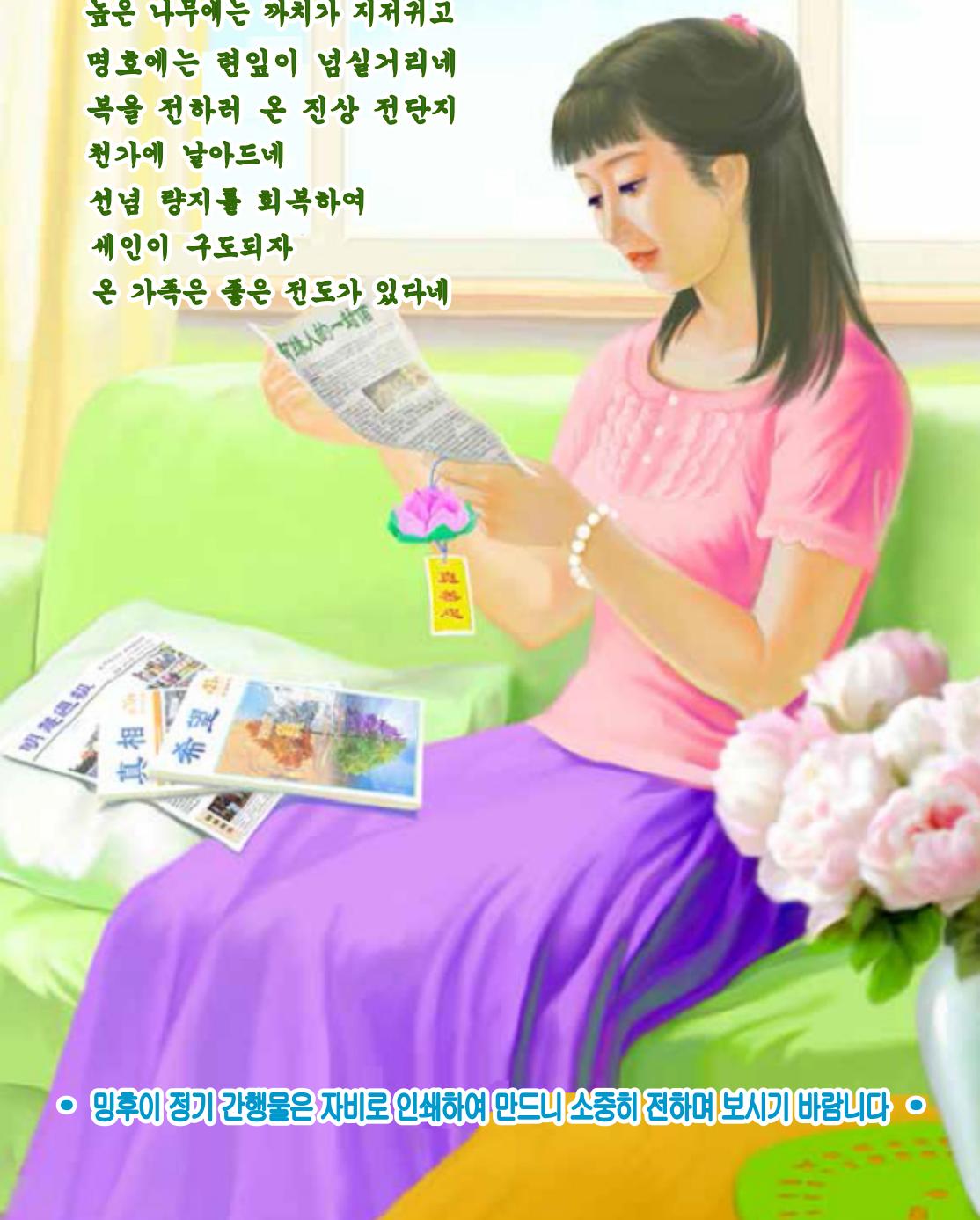


아름다운 전도 (원곡)

높은 나무에는 까치가 지저귀고
명호에는 헌잎이 넘실거리네
복을 전하려 온 진상 전단지
천가에 날아드네
선님 량지를 회복하여
세인이 구도되자
온 가족은 좋은 전도가 있다네



• **明후이 정기 간행물은 자비로 인쇄하여 만드니 소중히 전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

밍후이 정기 간행물

격월간 제 108 기

하늘이 내린 복



밍후이왕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MINGHUI.ORG

- “기사회생”은 더는 전설이 아니다
- 의사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 4 대 불치병에 걸린 그녀가 아직 살아있나요 !
- 수술 전 신기하게 살아진 혈관종양

목록

CONTENTS

서두 일문 1

언진 마음으로 국민을 구하다
선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

복이 만가에 들어가다 4

나의 집에서 발생한 거대한 변화
가족의 복분

생명의 기적 12

절망속에서 다시 얻은 삶
“기사 회생”은 더는 전설이 아니다
모친의 곱사동이 곧게 펴졌다
의사는 놀라 소리쳤다: 4 대 불치병
에 걸린 그녀가 아직 살아 있나요!

구명 진언 26

수술 전 신기하게 사라진 혈관종양/
길어 부스러진 다리 절단할 필요 없게
되었다 / 파룬파는 나의 목숨을 두번
이나 구해주었다 / 청각이 정상으로 회
복된 선천성 통아

선념 득복 35



큰 복을 받은 일가족
한해 한해 더 좋아지는 삶
오빠의 좋은 운수

악보에 원인이 있다 44

촌 서기의 선택

앞표지

파룬궁 제5조 공법——선통쟈츠파(神通加持法)를 연공하고 있는 뉴욕 파룬
궁 수련생

뒤표지

아름다운 전도

돌파 프로그램을 얻는 방법

방법 1, 해외 전자우편으로 freeget.one@gmail.com 혹은 xiazai@upup.info에 우편을 보내되 내용을 임의로 하고 제목을 임의로 (비우지 마세요) 하세요. 10분 내에 몇 개 돌파 프로그램을 내려 받는 주소를 얻을 수 있으며 임의로 주소 하나를 쳐서 돌파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후 압축을 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해외 전자우편으로 freeget.ip@gmail.com에 우편을 보내세요. 내용을 임의로 하고 제목을 임의로 (비우지 마세요) 하세요. 10분 내에 몇 개 IP주소를 얻게 되는데 인터넷 봉쇄 돌파에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링후이왕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 www.minghui.org

생겨 자징취안은 당장에서 죽고 다른 두 명의 촌 서기는 경한 상처를 입었다.

자징취안, 46세, 소오가 촌 서기이다. 1999년 장쩌민 류망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해서부터 자징취안은 중공이 파룬궁을 비방, 모함 한 거짓말에 깊이 독해 받았다. 이 몇년간 한차례 또 한차례 미행, 은폐감시, 고발, 중공의 경찰과 배합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아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에 무수한 고통과 시달림을 가져다 주었다.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들은 자징취안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번 그의 집에 가서 그와 가족에게 파룬궁이 무고하게 박해받은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었다. 자징취안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참여했다. 자징취안의 마누라는 더욱 사당에 미혹되어 기어히 사당의 충실한 신도가 되려했다.

결국 2016년 5월 2일 아침 9시 경에 자징취안과 다른 두 마을의 촌 서기는 자가용차로 외출하다가 짐을 실은 화물차 뒤쪽에 깔려 당장에서 폭사했는데 겨우 46살이였다. 하지만 조수석과 뒤쪽에 앉은 진상을 알고 있던 기타 마을의 두 명의 서기는 쓸리기만 하고 경상만 입었다.

“선악엔 보응이 따르고 있다”는 자연의 법칙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은 만일 제때에 깨닫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보응이 닥치는 것은 언젠가의 일이다. 우리는 자징취안이 파룬궁 진상을 알지 못하고 접수하지 않으며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하지만 기타 두 촌 서기는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진암박해속에서 선량을 선택하였으니 생존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역시 좋은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



해외 파룬궁 수련생 반박해 대행진

작년 3월 말, 둘째 오빠의 이주한 집이 새 주택으로 돌아오는데 이주한 순서대로 집을 나누게 되였다. 둘째 오빠의 나이는 이미 정년퇴직에 가까워 낮은 층의 원채를 가지려 했다. 하지만 둘째 오빠 차례에 집을 선택하러 들어가려 할 때 앞사람이 나오면서 말했다: “19층 이하의 원채는 이미 없습니다.” 둘째 오빠와 함께 간 큰 언니가 집을 선택하러 들어 갔을 때 보자마자 눈이 휙둥그래졌다. 집 선택판에 낮은 층 집의 작은 칸에는 작은 붉은 기발이 꽉 차 있었다. 오직 7층 집을 가지려 했던 둘째 오빠가 한창 조급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 사업 일꾼이 큰 언니에게 알려 주었다: “이모, 여기에 7층 원채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아주 작은 공백점이 하나 있었다. 당시 둘째 오빠와 큰 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고 즉시에 사부님께서 그에게 이 원채를 남겨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오빠의 좋은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좋은 운이 끊임없이 생겼다. 파룬따파는 둘째 오빠에게 하나의 참신한 생활을 가져다 주었다. ◇



|악보에 원인이 있다 (惡報有因)|

촌 서기의 선택

【명후이왕】 2016년 5월 2일, 료녕성(辽宁省) 조양시(朝阳市) 건평현(建平县) 로관지진(老官地镇) 소오가촌(小五家村) 서기 자징취안(贾景泉)과 두 명의 다른 마을의 촌 서기는 자가용차로 외출하다 차 사고가

|서두 일문(卷首一文)|

**어진 마음으로 국민을 구하다
선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



쉬유궁(徐有功)은 중국 고대 백성들의 깊은 애대를 받는 10대 청렴한 관리중[기타는 : 바오정(包拯), 하이루이(海瑞), 디런제(狄仁杰), 자오광한(赵广汉), 천시량(陈希亮), 황바(黃霸), 쿭중(况钟), 탕빈(汤斌), 시먼바오(西门豹)]의 한 사람이다. 그는 장기간 사법판사로 지내는 동안 법을 집행함에 정의를 지키고 황제에게 감히 간언하여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재임시 6~7백건의 큰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온 세상이 그를 “인자(仁人)”라고 칭송했다.

쉬유궁은 포주사법참군[蒲州司法参军(형법 주관)]담임시 어진 마음으로 정무(政务)를 처리하였다. 안건을 심사할 때 장형(杖責)으로 사람을 징벌하지 않고 도리여 인의 도덕으로 사람을 교육하여 뇌우쳐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계발했다. 그의 감화하에 포주의 민풍은 크게 달라졌다.

“쉬우장(徐无杖)”이란 이름은 이로하여 널리 전해졌고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을 빌어 쉬유궁은 경성에 불리위 가 사법사승(司刑寺丞)을 담임했다.

우찌톈(武则天)이 황제가 된 후 혹독한 관리들이 온 세상을 사납게 굴었다. 간신 라이쥔천(来俊臣), 저우싱(周兴)등은 모두 밀고로 사람을 모함하여 출세하였다. 그들은 죄명을 꾸며 무고한 사람을 모해하여 장상호걸(将相豪杰), 공경대부(公卿大夫), 평민백성이 분들려 감옥에 갇히고, 참혹하게 살해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 한때 억울한 감옥살이 사건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조야(朝野)가 몹시 놀랐으며, 사람마다 위태로움을 느끼고, 조정의 관리들은 노여우나 감히 말을 못했다. 하지만 쉬유궁은 도리여 직언을 서슴치 않고 백성을 위해 변호하고 시종 정의를 지키며 아첨하지 않았다. 그는 늘 조정에서 도리에 근거하여 쟁론하고 힘

써 공평하게 안건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법에 따라 형벌을 정했다.

어느 한번은 라이쥔천, 저우싱, 쬐위안리(索元礼) 및 우청쓰(武承嗣) 등은 련합하여 충신 디런제 등 7명이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하며 목을 자를 것을 극력히 주청했다. 쉬유궁은 홀로 선뜻 나서서 우찌텐에게 강력한 간언으로 충신이 무죄하고 모함 당했음을 밝혔을뿐더러 권한이 법보다 큰 현상이 더는 계속되여서는 안된다고 제출했다. 당시 조당에 있던 2~3백명 문무 대신들은 모두 매우 긴장했으나 쉬유궁은 거침없이 대답했고 조금의 위축과 두려움도 없었다. 우찌텐은 처음에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 없었는데 후에 쉬유궁의 말에 도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그의 용기와 견식에 설복되어 이 안건을 다시 심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로하여 충신들이 비로서 살아남게 되였다.

쉬유궁이 형부랑중(刑部郎中) 담임시 한번은 그의 직속상관 형부시랑(刑部侍郎) 저우싱이 그에게 한건의 안건을 주면서 말했다 : “이 안건은 원 도주자사(道州刺史) 리런바오(李仁褒)와 그의 남동생 유차현령(榆次縣令) 리창사(李長沙)가 반역을 꾀한 안건이고, 사형사(司刑寺)에서 이미 반역죄로 판결하였으니 당신이 한번 가져다 보세요……” 쉬유궁은 문서를 받아 본 후 큰 소리로 말했다 : “그래 형제 둘이서 무예를 련습하고 활 솜씨를 비기면 추측하여 반역죄로 판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천리는 어디에 있고 국법은 어디에 있으며, 그래 황제라 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 응당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곧 쟁론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저우싱은 황제한테 쉬유궁이 고의로 여러 수형자들을 구했으니 마땅히 목을 잘라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하여 쉬유궁은 직무를 박탈당해 평민으로 되였다. 그가 관직을 박탈당한 후 반년이 안되어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공을 청해 승진한 저우싱도 남한테 “반역”으로 고발되어 하옥되고 그를 심사한 사람은 바로 라이쥔천이였다. 라이쥔천은 똑같이 혹형으로 저우싱을 위협하여 반역죄명을 승인하게 했고 저우싱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죄를 승인하는 수밖에 없었고 후에 류배 도중에 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쉬유궁은 다시 시어사(侍御史)로 채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형소경(司刑少卿)으로 승진했다.

을 비교적 상세히 말해줌과 아울러 그에게 “3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의 탈출)를 해주고 또 그에게 리홍쯔 사부님의 대련 설법 록상 CD를 주면서 그더러 열심히 보라고 했다. 한달 후 얼굴에 감출수 없는 기쁨을 띠고 온 그는 나에게 그의 복부가 아프지 않고 나았다고 말했다. 오늘까지 둘째 오빠의 병은 다시 발작하지 않았다.

뜻밖의 승진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고 있던 오빠는 늘 동료들을 나의 집에 데려와 나더러 그들에게 파룬따파의 진상을 말해주라고 했다. 둘째 오빠는 웃으면서 동료에게 말했다 : “나의 녀동생이 당신에게 강의하는 것을 잘 들어요..” 이렇게 그의 동료들은 한분이 오면 한분이 “3퇴” 하였다. 때론 그는 또 도와서 진상이 적혀 있는 돈을 썼다. 둘째 오빠는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실제는 중등학교 1학년 수평이여서 통계표 같은 것도 작성할 줄 몰랐다. 직장이 어려운 기업으로 된 후 둘째 오빠는 밖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아무런 재간이 없는데다 나이까지 많다보니 청결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1년 후 둘째 오빠는 뜻밖에 부문 사장으로 승진했고 로임도 매우 많이 올랐다. 둘째 오빠는 사장 업무에 대하여 전혀 모랐다. 공교롭게도 이때 다른 련쇄점의 같은 직무의 젊은 사장이 그의 직장에 초빙되어 실습하게 되였다. 뜻밖에도 업무 방면에서 둘째 오빠를 석달 이끌어 주었고 둘째 오빠의 업무가 전면적으로 익숙된 후 이 사람은 전임되어 갔다. 둘째 오빠는 파룬궁 진상을 알고 “3퇴” 를 도와 좋은 운이 따른 것이다.

이루어진 꿈

파룬궁 사부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매우 고마운 둘째 오빠는 나의 집에 올 때마다 과일을 가져다 사부님께 올리고 공손하게 향 한대를 올렸다. 작년년초 나와 래왕하던 두 파룬궁 수련생이 경찰에 랍치되어 나는 《명혜 주간》 자료를 잠시 그의 집에 보관하려고 가져갔다. 둘째 오빠는 두 말없이 : “얼마든지 가져오거라, 나의 이 곳에 두면 문제 없다.”

녀의 집은 어쩌면 이리도 복이 있을까요? 나는 파룬궁이 가장 심하게 박해받고 있던 그 몇해 내가 파룬궁의 서적을 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파룬궁 진상 소책자에 늘: “선의로 파룬궁을 대하면 하늘은 행복과 평안을 내린다”는 이런 한마디 말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생동한 사례의 증인이다. ◇

오빠의 좋은 운수

문 / 심양 파룬궁 수련생

【명후이왕】 나의 둘째 오빠는 금년에 58살이다. 이 십년간 집에서나 밖에서 오빠를 잘 아는 사람은 오빠를 행운스럽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치료하지 않고 나온 결석

8년 전의 어느 날 둘째 오빠는 갑자기 복부에 극통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담결석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그에게 수술해야 하며 비용은 1만원에서 1만5천원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때 둘째 오빠의 직장은 이미 어려운 기업이었고, 집에 돌아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으며, 직장의 공장 건물은 세를 주었고, 직원들에게 양로보험만 해주었으며 의료보험은 오히려 해주지 않았다. 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에 둘째 오빠는 곤란하게 되였다. 본래 생활이 충족하지 않던 그는 나의 집에 달려와 진통제를 찾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후에 다시 방법을 대여 수술비를 마련하려 했다.

고통스러워 하는 둘째 오빠의 모습을 본 나는 둘째 오빠와 말했다: “한 가지 고생하지 않고 돈도 안 팔고 병이 나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오빠는 시험해 보며 또 요구대로 하겠나요?” 그는 추호의 우려도 없이 말했다: “좋아!” 나는 그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무고로 박해받은 진상

당시 어사중승(御史中丞) 직을 맡고 있던 라이쥔천은 그들 도당과 함께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였다. 안건 심사 처리시 무릇 자신의 의향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곧 련좌(株連)를 실시하여 장유(長幼), 가족 모두 다 련루되었다. 매 한 사람을 심사하면 늘 펉박 유도하여 수십 수백명을 끌어냈고 돌아돌아 련루시키며 억울한 감옥살이 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쉬유궁이 사형소경을 담임시 무릇 대리사(大理寺)에 내린 조령(詔令)에 대해 그는 모두 일일이 재의하여 무고한 자들을 석방시켜 수백호 사람을 살렸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루명을 벗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쥔천, 허우쓰즈(侯思止), 쬐위안리 등 혹한 관리들이 련이어 주살되였고 이 역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사람을 해친 끝으로 악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쉬유궁의 명성은 더 커졌고 전중어사(殿中御史), 사부소경(司仆少卿)으로 위임되어 온 세상은 뛰여다니며 서로 알렸고 이를 위해 축하했다. 그의 자손들도 청렴 결백 공정한 가풍을 계승하여 저마다 매우 고운 품성을 갖고 있어 가도(家道)가 창성했다. 그의 5대 후손인 쉬상(徐商)은 태자태보(太子太保)에까지 이르고, 쉬상의 아들 쉬엔(徐彥)은 재상에 올라 제국공(齐国公)으로 봉하였다. 세세대대 부귀영화를 떨쳤으니 그야말로 선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쉬유궁의 “정의는 반드시 사악을 전승한다”는 견정한 신념과 백성에 대한 애호는 사람들의 존경과 밤들림을 받았다.

사람이 되든 관리가 되든 반드시 엄격히 지기를 단속하고 어떤 때에도 모두 진리와 정의의 원칙을 견지하며 자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도덕과 량심을 굳게 지켜야만 비로서 밝은 전도가 있으며 선악에는 보응이 따른다는 자연의 법칙이 일체를 가늠하고 결정한다. ◇



복이 만가에 들어가다(福入万家)

나의 집에서 발생한 거대한 변화

아들은 대학 시험에서 발휘하게 뛰여나 중국 남방의 명문 대학에 붙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여 참가한 전국 수학 경연에서 전국 제2등의 좋은 성적을 따냈고.....온 마을로 소 남성, 친척 친구들은 매우 경탄했다. 정말 신기합니다. 두메 산골에 인재가 나타났습니다!



문 / 산동 파룬궁 수련생

【明후이왕】 평범한 농민인 나는 금년에 56살이다. 19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의 집에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

특별히 훌륭한 아들의 학습과 사업

거의 다 무식쟁이인 나와 남편은 몇 년밖에 공부하지 못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기실은 명목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던 그 나이는 바로 사당의 “57” 지시가 “빛을 뿌리는” 때였기에 학생들은 온 종일 로동을 배우고, 농사를 배우며, 군사를 배우면서 풀을 죽이고, 야채를 캐며, 고구마를 캐고, 돼지를 먹이며, 토끼를 길렀다. 남편의 수학시험은 대부분 빵점이고 어문 역시 합격은 아주 적었고 나의 학습 성적도 아주 평범했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부터 나는 파룬궁의 “찐, 쌈, 런(真、善、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또 경상적으로 남편과 아들에게 “찐, 쌈, 런(真、善、忍)”의 표준으로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였다. 특히 나는 내가 배우는 파룬궁 저작을 아들도 배우고 읽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 돌아쳤지만 도리여 힘든 줄 몰르고 종래로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 나의 집 세 아이는 어릴적부터 클때까지 약을 먹지 않고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다. 특히 매년 결을 철이면 남의 집 아이는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열이 나 병원에 가면 천원이상을 써야 했지만 나의 집 아이는 겨울 내내 전혀 약 한알도 먹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종래로 아이들의 학습을 보도할 줄 몰랐다. 하지만 나의 세 아이의 학습 성적은 각자의 반급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했다. 큰 딸은 재작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학교에서 3천원 장학금 상금을 받았다. 본 지방의 중점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매번 시험은 반급에서 여전히 손꼽혔다. 동학들과 선생님은 모두 공부를 잘 할 뿐더러 품덕이 좋은 나의 딸을 매우 부러워했고 늘 당신은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였는가고 나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사실 그대로 그들에게 나는 “찐, 쌈, 런(真、善、忍)”으로 아이를 교육하였다고 알려주었다.

둘째 딸은 세 아이중 파룬궁 서적을 읽는 것과 가부좌를 제일 즐기는 아이이다. 결국 이 몇년간 둘째 딸의 용모마저 현저한 변화가 생겼으며 해가 갈수록 준수하고 우아했다.

작년 8월의 어느날 나는 집에서 장사에 바빠 보내고 있었다.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밖에 나가 놀려고 방금 달려 나갔는데 차량 한대가 달려왔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더욱 놀란 운전기사는 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 차에서 뛰여내려 아이가 어느정도 차에 부딪쳤는 가를 보았더니 결국 아이는 멀쩡하고 별일 없었다. 사후 내가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들은 말했다. 그가 달려 나갔을 때는 바로 차머리 위치에 있었는데 그도 이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가 어찌되어 그를 비켜 지나갔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다 파룬따파 사부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파룬따파의 위력이다! 나의 집의 신기한 일, 기쁜 일을 터놓고 말하려면 정말 밤낮 3일을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한다.

우리의 생활이 해마다 너무 많이 좋아지자 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있을 때면 늘 의논했다: 그

나는 매일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자기 집 밭 농사를 해야 했고 온집 식구의 밥을 지어야 했으며 집안일을 처리해야 하고 또 남들에게 밀을 가는 부업을 해야 했다. 지금 밀을 가는 사람들

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보통 가루에 여러가지 첨가제를 넣는다. 나는 파룬궁을 배운 후 가는 밀속에 첨가제를 넣는 것은 “쩐, 쌈, 런(眞、善、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내가 가는 가루는 그 어떤 물건도 가첨하지 않았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가짜를 섞지 않도록 보증하였다. 생각밖에 소문이 나면서 동네방네 사람들은 온 가족이 순수한 밀가루를 한입 먹게 하기 위하여 모두 가까운 곳에 가지 않고 멀리에 있는 나를 찾아 밀을 가루냈다. 결국에 나의 장사도 하면 할수록 더 흥성했다.

나는 밀을 가는 김에 밀기울(麸皮)로 6마리 암퇘지를 길렀다. 암퇘지한 마리가 매년 새끼 돼지를 2배내지 3배를 낳았고 시장에 가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몇년 시장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 돼지새끼 한마리 값은 8백여원으로 올랐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남들은 할일이 없어 집에서 놀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데 당신은 도리여 아주 쉽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주위의 공장 광산, 기업들에서 모두 직원을 줄이고 방학하며 로임을 제때에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남편이 다니는 약공장은 도리여 뜻밖에 효익이 갈수록 좋아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장했다. 재작년에 나의 집은 승용차 한대를 샀고 작년에는 또 멋진 사합원(四合院) 벽돌 집을 지었다. 평시 먹고 입는 것마저 모두 크게 개선되어 생활은 좋기로 우리 자신도 조금은 적응되지 않았다.



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다니는 기간 부단히 “쩐, 쌈, 런(眞、善、忍)”으로 자신을 단속하도록 아들에게 당부하였다. 결국 아들의 학습 상황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2001년, 나의 아들은 대학교 시험에서 발휘가 뛰여나 중국 남방의 명문 대학에 붙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4학년 졸업하는 그 해에 학교를 대표하여 참가한 전국 수학 경연에서 전국 제2등의 좋은 성적을 따냈다. 2005년, 그는 또 학교를 대표하여 참가한 7개 나라 수학 경연에서 또 놀라운 뛰여난 발휘로 영예롭게 2등의 좋은 성적을 따냈다. 전교 사생, 령도들은 우러러 보았고 우리 마을의 로소 남성, 친척 친구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신기합니다, 두메 산골에 인재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생을 졸업한 후 아들은 남방의 한 세계적으로도 이름있는 큰 회사에 초빙되어 근무하게 되였다. 아들은 정직하고 업무 능력이 훌륭하기에 회사 령도자, 사장은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일부 중요한 항목들은 대부분 아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단판 교섭했고 경상적으로 외국의 동사장, 총경리와 교섭했다.

유난히 잘 자란 딸기

농사군인 나와 남편은 장사를 모르며 매매할 줄도 몰랐다. 대부분 밭이 산지인 우리 마을은 집안을 일으켜 부유해 지기에는 매우 곤란했다. 하지만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내가 심은 농작물은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

2006년, 우리 지역에서도 이웃 마을 사람들이 딸기를 심고 돈을 아주 잘 버는 것을 보고 딸기 재배 열풍이 일어났다. 나와 남편도 조금 심자고 상의하고 바로 이웃 마을 친척집으로 방문하러 가서 친척더러 좋은 묘목(즉 새 품종)을 사게끔 도와 달라고 했다. 결국 늦게 서둘러 좋은 묘목은 일찍 다 팔리고 다만 이미 도태된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심기 싫어하는 묵은 묘목만 남았다. 우리는 일부의 묵은 묘목(도태되었기 때문에 돈도 쓰지 않았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마을 동쪽 길 옆의 반 산비탈 밭에 심었다. 산 허리에 있는 이 밭은 약 100m 길이에 넓이는 5m 좌우밖에 안되며 대집체가 해체될 때 나누어 준 8푼 식량지이다. 바로 이

산비탈 밭에서 기적이 나타났다!

이듬해 봄, 밀가을 전 딸기를 거두어 드릴 때 나의 집 밭의 딸기는 크고, 붉고, 반짝반짝 했다. 묵은 풍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가격은 새품종에 비해 한근에 20~30전 싸지만 우리의 딸기는 산량이 높아 하루에 2~3백근을 수확했다.

한달이 지나서 투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친척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준 것을 계산하지 않고도 순 수입은 7천6백여 원에 도달했다. 손에 현금을 쥔 나와 남편은 모두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과학기술을 믿어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딸기를 다 뜯은 후 묵은 쪽을 제거하고 새 쪽을 다시 심으면서 산량이 높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의 8푼 밭의 묵은 딸기 묘목이 자라는 추세는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 푸르싱싱하고 한 그루 묘목도 빠뜨림 없었다. 친척은 나에게 해마다 쪽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결국 이듬해 우리의 딸기는 또 첫 해와 마찬가지로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 나의 집 밭과 잇대어 있는 이웃 및 매우 많은 마을 사람들은 알고서 모두 놀랐으며 그들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새묘목, 새품종,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이런 좋은 수확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세 번째 해 또 한해 묵은 묘목을 남기고 4천5백원을 수입했다. 네번째 해에야 우리는 비로서 이 밭의 신기한 딸기를 버리고 다시 바꾸어 기타 작물을 심었는데 수확은 여전히 유난히 좋았다! 나의 아들이 대학에 갈 때 진 약 3만원의 빚을 결국 우리는 단 2년 만에 다 갚았다. 설을 쇠러 집에 돌아 온 아들도 알고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부탁함과 아울러 경찰은 한창 도처에서 찾기에 나더러 조심하라고 알려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친척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상쾌히 대답했다: 나한테 두면 별일 없어요, 내가 꼭 잘 보관해 줄게요.

후에 들은 말에 의하면 친척집은 여러 번 가산을 몰수당하고 가족 몇명은 모두 로교를 당하고 판결을 받아 매우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

후에 나의 집 생활은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우선 농민인 나의 남편은 부근의 제약 공장에서 일자리 하나 찾았고, 이어서 나는 마을에 방아간을 세워 마을 사람들에게 가루를 내주겠다고 신청했더니 마을에서도 동의하였다. 이렇게 나의 집은 일부 경제 수입이 있게 되었다. 잇따라 나의 큰 딸이 태여났고 또 몇해 지나 둘째 딸이 태여났으며 막내 아들이 태여났다. 말하자면 의상하게도 우리 이 일대의 계획생육은 아주 야만적으로 실시하였다. 무릇 둘째를 낳으면 모두 빈털털이가 되도록 벌금하였지만 나는 아이 셋을 낳고도 오히려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계획생육을 검사하는 사람은 우리 집 문앞을 오가면서 누구의 집에서 산아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아이를 낳았는가를 조사하였다. 당시 나는 이미 셋째를 임신하였는데 그들은 의외로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넘어갔으니 당신이 말해봐요 신비하지 않은가요?

몇년전 시내에 사는 친척은 나에게 부탁하여 보관했던 파룬궁 서적을 가지러 왔을 때 나한테 몇책 남기면서 나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고 나도 파룬궁을 배우라고 권고했다. 이리하여 나는 짬을 타서 《전법륜(转法轮)》을 보았는데 이제서야 파룬궁은 사람더러 “쩐, 쌠, 런(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파룬궁을 배운 후 정말 대단한 것은 나의 집 생활은 단번에 한단계 크게 제고되었다. 정말로 하늘에서 복이 떨어져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



랍치되어여 아이의 마음에 엄청난 상해를 조성했다. 아이도 몇년간의 조정을 통해 지금은 갈 수록 좋아지고 있다.

70여세인 시어머니는 현재 정력이 충만되어 지금까지도 온 가족에게 밥을 지어줄 수 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가족이다. 일가족은 관운이 트이고 재산운이 트이고 신체 건강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파룬따파를 선의로 대하고 파룬궁을 선의로 대하여 얻은 복분인 것을 알고 있다. 리훙쯔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 “한 사람이 법을 얻으면 온 가족이 이익을 얻는다.” (《전법륜법해·지난(济南) 설법 문답풀이》) 이것은 아주 확실한 진리이다! ◇

한해 한해 더 좋아지는 삶

문 / 섬서 파룬궁 수련생

【명후이왕】나는 평범한 농촌 녀성이며 집은 섬서(陝西) 농촌에 있다. 전세기 90년대 내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나에게 대상자를 찾아주는 문제는 친정의 난제로 되였다. 미루고 또 미루어 나중엔 부모의 명, 중매의 말대로 나는 친정에서 30리 떨어진 매우 가난한 집에 시집왔다. 남편은 온순하고 가난하며 게다가 또 재간도 없었고 집에 경작지마저 적어 우리는 온 마을에서 끌지로 가난한 집이 되였다.

그때 우리 젊은 부부는 오직 허술한 낡은 집 한칸 밖에 없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안에 세면대야 몇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비물을 받았다. 몹씨 처량한 삶으로 나는 늘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너무 가난하여 아이를 기를 힘도 없으므로 몇년간 감히 아이도 갖지 못했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하루는 시내에 사는 친척이 파룬궁 서적을 넣은 가죽 상자 몇개를 가져와 나더러 보관해 달

10년래 한번도 재발하지 않은 남편의 고질병

나의 남편은 비록 잠시는 아직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지만 내가 수련 후의 심신건강과 가정 환경의 변화를 보고 그 역시 마음속으로부터 파룬따파에 대해 탄복하고 인정하였다. 그는 또 경상적으로 나를 도와 밖에 나가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발급하고 파룬궁 진상 현수막을 걸었다. 외지에 일하러 가도 “찐, 쌐, 런(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 역시 매우 수익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13년간 나는 주사 한번 맞지 않고 약 한알도 먹지 않고 온 몸이 가벼워 졌다. 그는 10년간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전에 늘 감기에 걸리던 고질병마저 근 10년간 한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55살이 되는 사람의 신체는 도리여 매우 건강했다.

우리 온 가족은 정말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기 그지없다. 파룬따파가 나의 인생의 길을 개변하였다! 리훙쯔 사부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행복이 가득찬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다. ◇



가족의 **복** 분



파룬따파 수련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득한 나는 크나큰 행복을 느끼고 있으며 나의 심신이 수익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모두 복을 누리고 또한 따라서 수익했다.

【명후이왕】 겨우 20몇살 밖에 안되는 나는 신경 쇠약, 신경성 두통, 위궤양, 위염, 풍습성 관절염, 철분 결핍 빈혈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이면 일어 나지 못했다. 신기한 것은 1996년 처음으로 파룬궁 수련생 단체 련공에 참가하였을 때 새벽 3시반에 일어나자 가족들은 모두 대단히 놀랐다. 십여년간 나는 종래로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른 새벽의 맑고 신선한 바람을 맞받으며 련공점에 온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파룬궁의 제5조 공법을 련마하였다. 그리고 나서 생기 빛랄하게 출근했고, 온 종일 모두 맑은 정신,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있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 시댁에서 발생한 기적

나는 결혼 후 1년간 시댁에서 살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신체는 모두 좋지 않았고 일년 내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았다. 내가 시댁에 가서 오래지 않아 늙은 량주는 점차 약을 줄였고 나중엔 약 한알도 먹지 않아도 신체는 아주 좋았다. 어느날 시어머니는 마치 새로운 대륙이라도 발견한 듯이 말했다: “정말 의상하네, 네가 우리집에 와서부터 마치 무엇이든 모두 순리롭게 변한 것 같고 나와 너의 아버지의 온 몸의 질병마저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는 말했다: “맞습니다. 어머님 나의 사부님께서는 한 사람이 련공하면 온 가족이 수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련공하므로 주위의 사람 모두 수익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저녁 나의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 직접 시부모의 방으로 갔고 그들은 한참 동안 말하는 것 같았다. 남편이 방에 들어 올 때는 이미 만면에 웃음을 띠였고 말할 틈도 없이 곧추 가더니 서랍을 뒤지였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가고 묻자 그는 말했다: “우리 서랍 안에 불상이 있나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있어요! 당신은 왜 갑자기 이걸 묻나요?” 남편은 말했다. 오늘 지도자를 따라 일 처리하러 갔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기어이 그에게 운수를 점칠 뿐만 아니라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기에 그는 거역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는 수 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당신 집 북쪽 방 책상의 남쪽 첫 서랍에 불상

더욱 사람을 기쁘게하는 것은 남편은 같은 연령의 사람들보다 더 젊어 보이고 매년의 여러가지 신체검사는 모두 표준 수치 사이에 있어 그는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친인이 선님이 생기자 파룬따파는 복을 내렸다

다년간 직장의 중공서기였던 오빠는 사당의 사악함을 똑똑히 인식하고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알기에 종래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3퇴” (중공의 당, 단, 대에서의 탈출) 한 후 신체는 현저히 좋아지고 관운이 트이여 아주 높은 직위를 가졌을 뿐더러 또 수입도 아주 높았다.

2000년 원단, 나는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려 두번째로 북경에 갔다. 진상을 똑똑히 알고 있는 남동생은 나와 함께 천안문에 갔고 그리고 천안문 근처에서 내가 파룬궁 진상자료를 붙히는 것을 지켜주었다. 남동생의 보호하에 나는 순리롭게 천안문 광장에서 경찰과 군경의 곁에서 진상자료를 몇장 붙히고 무사히 떠났다. 지금 남동생은 관운도 재산운도 트이여 련속 큰 폭도로 승진하고 로임도 올랐다.

녀동생의 상황도 남동생과 같다. 진상을 알고 있는 조카마저도 대학을 졸업한 후 순리롭게 리상적인 사업을 찾았다. 남동생의 말로 말하면 큰 누이가 파룬궁을 수련하여 친인들은 진짜 이익을 얻습니다. 나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말했다: “큰 누이는 너를 기편하지 않았잖아. 파룬따파를 선의로 대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선의로 대하면 나의 사부님께서는 꼭 너에게 큰 복분을 가져다 준단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아이는 아직 어렸다. 내가 두번이나 불법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아내를 리해하고 큰 복을 받은 남편

1999년전, 남편은 모 부문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고 수입도 짭짤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의 영광이였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 한 후 남편은 엄청난 압력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저녁에 그는 말했다: “우리 산책하러 갑시다.” 나는 그가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을 알았다. 한동안 걷고 있던 그는 멈추어 서서 말했다: “당신은 거짓 보증서를 쓰는 것을 고례해 볼수 없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자신은 배운 망덕할 수 없으니 리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리혼합시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당신이 사업과 전도를 잃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고 말했다. 어둠속에서 나는 그의 눈에 어린 눈물을 보았다.

사후에 알게되었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남편한테 아내를 요구하는가 아니라면 직위를 요구하는가의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선량한 남편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아내를 선택하였다. 하여 남편은 대번에 가족이 영광으로 삼는 사업과 직위를 잃었다. 사후 직장의 지도자는 남편한테 남편을 처리하라는 것은 북경 방면의 의견이라고 해석했다.

더욱 소중한 것은 남편은 나에게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당년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줄곧 숨겨왔고, 최근에야 그의 한 친구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선악엔 응보가 따르고 있다는 자연의 법칙이다. 나의 남편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천, 쌍, 런하오(真、善、忍好)”를 믿으면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아내를 선의로 대하였다. 후에 아무것도 잊지 않았으며 그리고 더욱 큰 복보를 얻었다. 몇년의 조정과 학습을 통해 남편은 또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직업이 생겼고 수입도 아주 높으며 년 수입은 60만을 초과했다. 과거 그의 친구들은 내가 남편의 앞길을 망쳤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친구들은 모두 아내의 덕분으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했으며 아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장이 있네.” 나의 남편은 다급히 부정하며 말했다: “ 없습니다. 나의 부모는 모두 군인이여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말했다: “젊은이 당신은 아주 행운스럽게 훌륭한 아내를 얻었네. 자네 처음 사귀던 그 대상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 그 녀자는 않되네. 자네 지금의 아내는 아주 훌륭하며 당신의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네…….” 남편은 서랍을 열고 말했다: “없네요, 다만 당신의 《전법륜(转法轮)》한 권 뿐인데요！” 나는 말했다: “그래요, 당신 책을 펼쳐요, 그안에 나의 사부님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원래 그가 말하는 불상은 바로 당신 사부님의 사진을 가리키는 것이였어요！ 나는 꽤 의혹스러웠어요, 그는 무엇이든 다 맞췄고 어머니가 이전에 아이 하나를 류산한 것마저 알고 있었어요. 유독 이 불상 문제만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는데 원래는 이런 일이였군요！” 그 후로부터 남편은 파룬따파의 저작을 보기 시작했다.

■ 복 받은 남편

장쩌민 류망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나는 경찰에 랍치되었다. 간수소에 나를 보러 온 남편은 경찰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다급히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이 재산을 몰수하러 오려고 하자 나는 그녀에게 책이 없으니 당신들은 갈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자 나는 내가 모두 찾아 보았고 몇 부의 자료밖에 없다고 하자 그들은 그러면 가지 않겠으니 당신이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나는 파룬따파의 서적을 모두 잘 감춰두었으니 당신은 안심해요！” 한달 후 나를 또 세뇌반(불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수감하는 검은 감옥)에 보내여 박해하였다. 나를 보러 온 남편은 몹씨 애석해 하면서 나를 보고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오로지 수련만 잘해요. 그들더러 펉박하라고 해요. 나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저축한 돈을 쓰고 나중에 정말 안되면 나는 살림살이를 다 팔아서라도 당신의 수련을 공양하겠어요！” 당시 옆에 있던 한 파룬궁 수련생은 감동되어 즉시 눈물을 흘리였다. 10일 후 나는 집에 돌아 왔다. 내가 방금 집문에 들어서자 그는 나에게 책을 꺼내주면서 말했다: “여기 있어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운전기사인 남편은 직장에서 지도자에게 차를 몰아주고 있다. 한번은 큰 눈이 내렸는데 오후 3~4시경에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오늘은 정말 위험했어요, 진짜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의 사부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셨어요. 오늘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끌었요, 차를 몰던 나는 붉은 신호등이 커지자 급정거를 밟았고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핸들도 준확하지 않았어요. 길목의 지면에는 온통 얼음이여서 나는 반나절 바삐 돌아쳤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 눈을 뻔히 뜨고 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어요.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매우 긴장했지만 다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앞의 그 차량과 곧 부딪치려는 순간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차는 갑자기 멈춰섰어요. 나는 차가 확실히 멈추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급히 차에서 뛰여내려 보니 두 차량 사이는 주먹 하나 거리 밖에 안되었어요! 나는 파룬궁 사부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었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 위험을 피면한 남동생

남동생도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다. 휴가로 집에 돌아 가자 어머니는 주방에서 압력솥으로 닭을 삶고 남동생은 주방에 가서 문에 기대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가 수도꼭지 옆에서 남새를 씻고 있을 때 갑자기 압력솥의 뚜껑이 날아 올라 천정에 부딛치고 잇따라 떨어졌다. 급속히 떨어지는 과정에 남동생의 머리에 바싹 달라 붙어 그의 뒤편의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남동생 뒤편의 객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려 하였다. 하지만 잇따라 솔뚜껑이 하마트면 남동생의 머리에 떠러질뻔한 것을 보았을 때 순간 온 몸의 힘이 빠지면서 다시 소파에 주저 앉았다 다들 정신이 들고나서 보았더니 압력솥 안의 닭국은 죄다 천정에 튕겼고 그렇게 두터운 알루미늄으로 된 솔뚜껑마저 부딛쳐 심하게 변형되어 한군데 크게 치켜들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사후에 무섭게 느껴진다! 전반 과정을 아버지 어머니는 보았지만 압력솥과 등지고 있던 남동생은 하마트면 생명이 엄중한 위협을 받는 정황하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의 집 식구들은 이번에 직접 눈으로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제자에 대한 보호를 견증하였다.

|선념 득복(善念得福)|

큰 복을 받은 일가족

문 / 대륙 파룬궁 수련생 징쓰(靜思)



나는 대학교에 다닐 때 맹장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늘 배가 아파 까무러쳤다. 후에 개복탐사술(剖腹探查术)을 하였고 출원할 때의 결론은 엄중한 신경관능증이었다. 이 병은 나를 옹근 10여년 괴롭혔고 그 기간의 고통은 참으로 말로 표달할 수 없었다.

후에 나는 또 다낭성 란소 종합증(多囊卵巢综合症)이 검출되었고 그 후에는 또 관절염, 만성 위염, 두통, 안통 등등이 생겼다. 남편의 말로 말하면 내가 아직 아프다고 말하지 않은 곳은 머리카락과 손톱뿐이였다. 줄곧 아이가 태여날 때까지도 나의 몸은 호전 되지 않았다.

1996년 6월, 바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동료는 나에게 《전법륜(转法轮)》책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단 숨에 다 보았는데 나의 마음은 그렇게도 후련했다. 리홍쯔 사부님께서는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의 몸에 있던 십몇년의 질병들은 아주 빨리 가뭇 없이 사라졌고 나는 종래로 없던 상쾌함, 마음속으로 종래로 없었던 기쁨을 느꼈으며 그런 행복은 정말 너무 미묘했다. 한 아주머니는 나의 시어머니와 말했었다: 당신 며느리의 얼굴을 보세요. 정말 복숭아 꽃답습니다. 다년간 나를 걱정하고 있던 친인들도 사람을 만나면 말했다: 파룬궁은 참 신기합니다.

《전법륜(转法轮)》이 책에서 련공인은 좋은 사람이 되여야 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남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나는 리홍쯔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였고 우리는 시부모와 8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종래로 얼굴을 붉힌적이 없는 하나의 행복한 가정이였다.

는 선천성 룡아,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내리며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속담에: “십룡구아(十聋九哑)”라고 말한다. 만일 치료하지 못한다면 장래 병어리로 될 가능성이 있고 온 가족은 조급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돈이 없을뿐더러 돈을 꾸더라도 치료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딸, 사위는 나의 집에 와서 나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하였다. 나는 1999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수련을 통해 많은 병들이 치료하지 않고 완쾌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 쌠, 런하오(真、善、忍好)”를 읽고, 파룬따파를 믿기만 하면 기적이 발생한다고 알려주었다. 돌아간 후 딸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 쌠, 런하오(真、善、忍好)”를 읽었고 때로는 또 큰 소리로 읽었다. 한달 후 병원의 검사에서 아이는 많이 나아졌으나 한쪽 귀가 여전히 비정상적이였다. 또 한달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청각은 모두 정상이였다. 의

사는 말했다: “선천성 룡아가 어찌 나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기적입니다!”

더욱이 온 가족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 쌠, 런하오(真、善、忍好)”를 읽고 아이의 병이 나았다고 말했다. 막내 딸이 직장에 출근하자 동료들은 모두 아이의 일을 물었고 그녀는 동료들에게 알려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나의 어머니가 우리더러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 쌠, 런하오(真、善、忍好)”를 읽으라고 알려주어 읽었더니 나았으며 돈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의 큰 사위도 의사이다. 이전에 파룬따파에 대하여 반신반의 하였던 그도 이 사실을 통해 완전히 믿었다. 그는 치료하기 아주 어려운 선천성 룡아가 나았을 뿐더러 또 이렇게 빨리 나았으며 돈 한푼도 쓰지 않았으니 정말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집 많은 친척 친구들은 모두 파룬따파(法轮大法)의 사람을 구하는 신기한 공효(功效)를 믿게 되었다. ◇

■ 차 사고에서 무고한 오빠

어머니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오빠는 인행도로에 뛰여오른 승용차에 부딪쳤다. 부딪치는 충격력이 너무 크다보니 당시 오빠는 자전거에서 10여메테까지 뿌리쳐 나가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고 그 승용차는 잇따라 또 달려와 그의 몸을 깔고 지나갔다. 광장 옆에 행인이 비교적 많았기에 목격자들은 모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여 이번에 사람은 깔리여 부서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오빠는 스스로 땅에서 일어났다. 끝 사람들 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어떤 사람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고 여기였다. 모격자를 놓고 말하면 이런 충돌에서 사람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때 앞으로 다가온 한 경찰은 눈을 똑바로 뜨고 오빠를 보면서 오빠의 어깨를 두드리며 뜻밖의 말을 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일어섰나요?” 나의 오빠는 말했다: “방금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스스로도 죽는가 했어요,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일어섰어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오빠에게 알려주었다: “오빠, 이렇게 엄중한 차 사고에서 뜻밖에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빠는 말했다: “나는 알고 있다.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17년간
우리 집에서 겪은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파룬따파의 은택
을 입은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견증하였다. ◇



절망 속에서 다시 얻은 삶

문 / 대만 파룬궁 수련생

“나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나를 구해 준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대만 파룬궁 수련생 뤄메이화(罗美华)녀사의 내심에서 우러러 나온 감사의 말이다. 그녀는 말했다: “진정으로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는 비로서 다시 얻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파룬따파를 접촉하였지만 진귀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파룬따파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10년이란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 모친이 인사불성으로 일년 내내 앓아누워 있고 부친이 암에 걸려 세상을 뜬 등 일련의 일들을 겪은 후 그녀 자신도 점차 인생에 대하여 신심을 잃었다.

의거할 곳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신운(神韵) 공연(海외 파룬궁 수련생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으뜸가는 중국 고전무용 공연단체) 은 오랫동안 파룬따파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장애하던 먼지를 털어버렸다. 뤄메이화는 자신이 파룬궁 수련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더는 인생에 대하여 비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나를 포기한 적이 없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의 제일 깊은 곳의 감격을 불러일으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중서의와 민간처방 모두 속수무책

조산아인 뤄메이화는 신체가 허약하여 어릴적부터 약 단지였다. 고등

는 동의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의 파룬궁을 수련하는 친구가 평소에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그 운전기사를 좋게 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그한테서 2~3천원을 받아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즉시 친구의 집에 가서 그와 일의 경과를 말했다.

나는 이 친구에게 말했다: “파룬따파는 나를 두번이나 구해주었습니다. 나는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을 알지만 글을 쓸 줄 몰라 당신이 나를 도와 생명을 구해준 리대사님께 감사드리고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글로 써주세요. 나는 진심에서 우리러나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 쌈, 런하오(真、善、忍好)’를 믿습니다”. ◇

청각이 정상으로 회복 된 선천성 통아

문 / 흑룡강 파룬궁 수련생



나의 막내 딸은 교사이다. 2013년 2월 임신 7개월 때 조산하여 한 남자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태여나자 경련을 일으키고 열이 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치치하 열시 병원에 데려갔다. 구급치료를 받고 아이는 생명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40여일 입원하고 비로서 집에 돌아갔고 6~7만원을 썼다. 하지만 3개월 후 아이는 또 경상적으로 명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의사

을 다 썼다. 몇 사람이 돌을 치우자마자 당시 나는 일어섰다. 그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싸였고,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그들은 나를 에워싼 채 이곳저곳을 살피고 만졌으며, 전신이 온전하고 살갗도 다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대단히 놀라워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마음속으로 어찌된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호신부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계속 일하자고 말했다. 저녁에 퇴근한 후 나는 친구의 집에 가서 그한테 알려주었다. 그 호신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죽었으며, 지금 생각해도 사후에 두렵습니다. 그에게 낮에 출근할 때 겪은 위험을 말하면서 그에게 감사드렸다. 그는 나에게 감사드릴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나의 사부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셨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었다. 당신은 작업반의 사람과 무엇때문에 이렇게 운이 좋았다는 것을 말했나요? 나는 감히 남들과 파룬따파가 나를 구해주었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해인 2006년, 어찌 그렇게도 교묘한지 역시 3월 19일였다. 나와 차이(蔡) 형이 백화점에 갔는데, 나는 큰길을 건너다가 고속으로 달려오는 버스에 부딪쳐 10여미터 떨어진 곳으로 튕겨나갔고 바로 정신을 잃었다.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가운데 운전기사는 나를 안고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천천히 정신을 차린 나는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다. 운전기사는 그들의 차가 나를 쳤다고 말했고,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빨리 병원에 가서 보이라고 말했다. 운전기사는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다. 아무런 외상도 내상도 없자 그는 곧 집에 돌아가 주사를 맞으라며 나에게 6백원을 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일을 마무리 했는데 나

학교 1학년 하학기 과민증에 걸려 밤이면 조용히 잠들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워 수면의 질은 매우 차했다. 엎친데 덮친다고 혀에 물집이 생겨 아플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삼키기 어려웠다. 중서의와 민간의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어도 모두 근치할 방법이 없었고 기껏해야 조금 통제하거나 완화시킬뿐 그 후 또 발작하였고 이런 고통은 그녀를 30~40년이란 오랜 시간을 괴롭혔다.

2003년 어느날 뤄메이화는 우편함에서 파룬따파 간단한 소개를 보았다. 그녀는 파룬궁을 통하여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려는 목적에 도달하려 했다. 하지만 결코 참답게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파룬따파를 료해하지 않아 진정으로 배우고, 실속 있게 수련을 한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었다.

3년이 지난 후, 2006년 메이화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사람을 도와 병을 치료하는 기공법문에 투입하였다. 잇따라 모친은 연고 없이 넘어졌고 “기체(氣切)” 수술을 한 후 식물인으로 되여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었다. 그 다음해 부친이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2011년 메이화는 유방암에 걸려 수술했고 수술 후 매번 방사성 치료는 모두 메이화로 하여금 몹씨 허약해지고 어지럽게 하여 생명력이 신속히 살아지는 감이 들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그녀의 머리속에는 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파룬따파를 실속있게 수련하고 생기를 얻었다

2013년 2월, 메이화는 판교(板橋)에서 우연히 알고 지내던 파룬궁 수련생을 만났는데 그녀에게 신운을 가볼 것을 추천하였다.

신원 무대의 큰 막이 열리자마자 메이화를 깊이 감동시켰다. 옹근 공연이 막을 내릴 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감동의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 후 메이화는 그 알고 지내던 파룬궁 수련생의 고무를 받아 들이고 “파룬따파 9일 연수반” (간청하여 9일반)에 갔고 집체 련공에 참가함과 아울러 파룬궁 서적을 읽었다. 30~40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혀에 물집이 생기는 병도 약을 쓰지 않고 나았다.

메이화는 늘 “9일반” 학습에 참가했고 신수련생 처럼 옹근 9일반에 지각하지 않고 조퇴하지 않으며 리훙쯔 사부님의 설법 록상의 일분일초라



도 놓치기 아쉬워했다. 그녀는 말했다: “‘9일반’에 참가할 때마다 새롭게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어버리며 정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의 메이화는 련공점에 가서 기타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련공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친히 체험했습니다. 련공장에 가서 단체 련공을 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 병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지 지금까지 4년 남짓한 시간에 보건카드를 쓰지 않았고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며 약도 먹지 않았지만 신체는 매우 건강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더는 비관하지 않으며 인생에 대한 충만된 희망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자유로와 매일마다 아주 충실히 합니다.” ◇



“기사회생”은 더는 전설이 아니다

문 / 흑룡강 오상 파룬궁 수련생



평소에 사람들한테서 불치병에 걸려 거의 희망이 없던 누구 누구는 다시 살아나 “기사회생(起死回生)”했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모두 믿지 않았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병원의 치료를 계속 받아도 나중에 여전히 사람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되는데 어디에 이런 신의(神医)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봉착하리라고는 도무지 생각 못했다

은 신선이 보우한 것이 아닌가요!” 당시 민공 여러명이 “3퇴” 했다.

한달 후 취씨는 출원했고 옹근 다리는 모두 새 살이 자라났다. 나의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는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아들은 그에게 일년 로임을 주었고 그는 매우 만족했다. ◇

파룬따파는 나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주었다

문 / 칠대하 시민 징화(景华)



【명후이왕】 나는 칠대하(七台河) 사람이며 작은 광산에서 일한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한 사람과 접촉했는데 그는 나에게 매우 많은 파룬궁 진상을 말했다. 례를 들면 “천안문 분신자살”은 속임수이고, 중공에 고용된 몇 사람이 파룬궁 수련자로 사칭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며, 그리고 공산당은 서방에서 온 유령이라는 등이다. 그 친구는 또 나에게 “3퇴”를 권했고 나는 당연히 탈퇴했다. 지금 누

가 아직도 공산당을 믿겠는가. 그는 또 나에게 파룬궁 호신부를 주며 몸에 지니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 쌐, 런하오(真、善、忍好)”를 항상 외우면 꼭 복을 받는다고 알려주었다. 복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는 나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파룬궁을 수련하는 이 친구는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이였으므로 나는 또 그가 말한대로 자주 읽었다.

2005년 음력 3월 19일, 그날 나는 출근하였고 간내에는 우리 작업반의 다섯 사람이 있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4~5백근 되는 큰 돌이 나를 덮쳤다. 당시 네 사람은 놀라서 정신이 없었고, 사람이 살아 나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둘러 돌을 옮기려고 있는 힘

를 절단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취씨 다리에 있던 배수병이 없어진 것을 보았는데 전혀 간염되지 않아 보수적인 치료만 하면 되였다.

우리가 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취씨는 일어나 앉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다리에 얇은 껍질이 생겼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신불은 정말 나를 보우하고 있습니다！” 6일 사이에 살이 없던 다리를 살려냈다. 의사도 말했다 : “정말 기적입니다！”

공지로 돌아간 후 그 직공장과 민공들은 모두 나와 아들한테 물었다 : “취씨는 다리를 절단했지요 ?” 나는 절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새 살이 자라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놀라워했다. 50여세인 한 녀직공장은 말했다 : 당시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그 피범벽이 된 다리의 살은 모두 깔려 부스러졌는데 이렇게 빨리 살이 자라나다니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말했다 : “취씨는 신을 믿고 그는 ‘3퇴’ 하였으며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를 읽어 신불이 그를 보우하였습니다.” 녀직공장은 믿지 않으면서 또 나의 아들한테 물었다. 진짜인가요? 나의 아들은 진짜이며 다리를 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자기 아들을 공지에서 불러와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 취씨의 다리를 살렸단다. 너는 어서 어찌된 일인지를 들어 보아라. 그녀는 나더러 다시 한번 그녀의 아들에게 취씨가 “3퇴” 한 일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 온 가족 모두 ‘3퇴’ 하자꾸나 !” 나는 그들에게 모두 어떤 조직에 가입하였는가를 묻고 또 그 두 사람에게 애명을 지어주고 모자를 도와 그들이 가입했던 공산당과 부속조직에서 탈퇴시켰다. 녀직공장은 그녀의 아들더러 집에 전화 걸어 그녀의 며느리와 손자를 찾아 그들도 “3퇴”를 하라고 하였다. 나는 “3퇴”는 반드시 본인이 동의해야 하지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화로 그녀의 손자한테 말했다: 빨리 탈퇴하겠다고 말하거라 ! 아울러 전화를 나의 귀전에 대고 나를 듣게 하였다. 그녀는 재삼 나에게 꼭 그녀의 온 가족을 탈퇴시켜 달라고 말했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민공들에게 말했다 : “당신들도 모두 ‘3퇴’ 하세요. 취씨의 다리를 살려낸 것

나는 산간지대의 한 림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1년 나는 전신이 부어 소산자(小山子) 병원에서 한달 남짓 주원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나는 또 오상시(五常市) 병원에 가서 진찰하였는데 의사는 패혈증 진단을 내렸고 치료하려면 피를 바꾸어야 하며 피를 한번 바꾸려면 30만이 수요되었다. 그 때 나는 3만원도 없었다. 의사는 또 나에게 피를 바꾸는 치료를 해도 희망이 없으니 집에 돌아가 먹고 싶은 것을 사먹으라고 알려주었다. 병을 보이던 그날 나는 이미 서 있지 못해 웃층에서 떨어져 온 얼굴은 피투성이 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고기를 사고 맛있는 것을 샀는데 기실 당시 나는 이미 먹을 수 없었다. 며칠 안되어 밥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구들에 옹근 1년을 누어 있었다.

사방을 진동한 “기사회생”

섣달 20일 그날 아내는 내가 곧 임종할 것 같아 관을 만들 사람을 찾으러 갔다. 돌아 오는 길에 알고 지내던 누이를 만났다. 누이는 내가 거의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나를 보러 왔다. 전신은 부어 큰 고무 뿔 같고 말조차 할 수 없고 숨 쉬기도 힘든 나를 보고 누이는 나에게 : “동생, 파룬따파만이 자네를 구할 수 있네.”라고 이야기 하면서 마치 카드만큼 크기의 물건 하나를 나에게 주면서: “이것은 대법 호신부(护身符) 이네.”라고 말했다. 또 나에게 알려주었다: “꼭 성심성의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 쌐, 런하오(真、善、忍好)’를 읽어야 하네” .

당시 나는 생각했다 : 지금 나는 아미타불을 읽어도 다 소용이 없는데 이 9글자를 읽으면 좋아질 수 있다니 가능한가? 누이가 간 후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지경이 되여 삶의 희망도 없는 내가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도 시험해 보는 편이 낫지 않는가, 그러면 읽어보자 !

살기 위해 나는 밤낮 경련한 마음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 쌐, 런하오(真、善、忍好)”를 읽었다. 5~6일 후 나의 기력은 매우 좋아졌고 앓아 있고 싶으면 앓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조금씩 먹고 마실 수 있었다. 또 며칠 지나 병상 신세를 면할 수 있겠는지 시험해 보았더니 땅에 내릴 수 있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나는 대단히 놀랐다 ! 이 파룬따파는 정말 대단하며 너무 초상적이다 !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였다

이 때 내가 하고 싶은 첫번째 일은 바로 그 누이를 찾아가 그녀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녀한테 파룬따파에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묻고 싶었다? 이리하여 나는 막대기를 짚고 그녀를 찾아 갔다.

그녀의 집은 전문 목이버섯을 심는 개인 사업자였다. 나에게 문을 열어 준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귀신을 보았는가 하여 하마터면 놀라 곤두박질 칠뻔했다. 왜냐하면 온 림장의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관까지 다 준 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갑자기 여기에 왔는가? 사람이 맞는가?

여러 사람들은 나를 구들로 끌어 당겼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아진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말했다: 파룬따파는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이는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파룬따파의 책을 찾아주고 또 나를 집에 바래다주었다.

나는 단숨에 파룬궁의 주요저작 《전법륜(转法轮)》을 다 읽었다. 이전에 비록 불교의 지식을 조금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수련인지를 알지 못했고 사람이 살아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 이 책에서 나는 답안을 찾았고 그리고 금후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그날부터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매일 파룬궁의 저작을 학습하고 사람이 오면 그(그녀)에게 파룬따파가 어떻게 나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이야기하고 파룬따파의 초상함과 신기함을 이야기하였다. 후에 나는 또 mp5전자 방송기를 사서 리홍쯔 사부님의 설법 록상을 보았다.

2012년 6월에 정식으로 련공을 시작하였다. 비록 때로는 동작이 아직 표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사부님께서는 이미 나의 신체를 정화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나는 하루종일 설사했는데 전부 물을 배출했다. 20



기타 환자가 있어 그는 조금 두려워했다. 나는 말했다: “ 이미 이지경이 된 자네는 잘못하면 불구자가 될 것인데 자네 후반생을 어떻게 지낼거요? 자네 만약 다리를 살리려면 두려워 말게. 자네가 탈퇴하면 당신의 다리를 살릴 수 있네. 공산당은 자네의 다리를 실릴 수 없고 자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으니 자네 탈퇴해 보게나, 혹시 아주 빨리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걸세.”

그는 듣고서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나는 또 그에게 알려주었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부단히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쩐, 쌐, 런하오(真、善、忍好)”를 읽고 이 9글자를 기억하세, 부단히 읽으면 신불은 자네를 보우할 것이며 자네의 다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네. 자네가 성심으로 읽고 부단히 읽는다면 신불은 바로 자네 곁에 있네.

그는 부단히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

우리가 병원을 떠나면서 나는 아들에게 취씨한테 맛있는 음식, 맛있는 파일을 많이 사주고 그를 더 많이 관심하라고 알려주었다.

이틀 후 우리 둘은 또 병원에 갔다. 취씨의 얼굴색을 보니 혈색을 띠고 사람도 정력이 있고 다리에서 밖으로 흐르는 피물도 많이 적어졌다. 나는 그한테 물었다: 다리가 아직도 그렇게 아픈가요? 그는 많이 약해졌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하루 더 관찰해 보아야 하며 만일 체온이 오르지 않는다면 다리를 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또 그한테 일깨워 주었다: “자네 꼭 부단히 그 9글자를 읽어야 하네 !”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걱정 마세요, 나는 금후 그 9글자만 읽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은 구원되였음을 알았다.

이틀 후 나와 아들은 재차 병원에 갔다. 병원의 의사는 우리한테 다리



이튿날 나는 이른 차를 타고 대경시에 도착하였다. 아들이 나를 마중 나왔고 나는 그가 아무일도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은 많이 느슨해 졌다. 우리는 함께 걸으면서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을 이야기 하였다 :

공자의 성이 취(曲)씨인 한 농민공은 공작물 보온 작업을 맡았다. 어제 큰 방수포를 철거할 때 힘을 너무 지나치게 쓰다보니 룽문식 기중기의 철 궤에 미끄러 넘어졌는데 한창 운행하고 있던 룽문식 기중기 철바퀴가 한쪽 다리를 깔아 뭉갠 후 또 앞으로 밀고 나갔고, 다리의 살은 차바퀴에 깔리워 죄다 부스러져 하얀 뼈를 드러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농민공들은 모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는 보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에 보내였더니 의사는 검사를 마치고 말했다 : 절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처 면적이 너무 크기에 치료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4시간이면 감염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고위 절단을 해야 합니다.

듣자마자 몹시 놀란 나의 아들은 다급히 취씨를 대경 총국 병원에서 대경시 총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의 의사도 검사를 마치고 말했다 : 즉시 수술대에 올리고 무릎 쪽부터 다리를 절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과는 엄중합니다. 가족이 도착하지 않아 감히 서명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상처를 처리하고 나서 가족이 도착하면 래일 수술하기로 했다.

우리 둘은 급급히 대경 총병원에 도착했다. 병실에 와 보니 이 사람은 40살 남짓하고 체질은 건강하였는데 한창 다리의 통증으로 그는 윗 몸을 부단히 흔들었고 얼굴색은 창백하고 다리에는 배수병이 걸려있고 피물은 부단히 아래로 흘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물은 후 말했다 : “내가 자네한테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겠소, 당신을 도와 이 다리를 지킬 수 있는데 자네의 결심에 달렸네.” 나는 파룬궁 진상, 중공이 무엇때문에 파룬궁을 박해하는가를 말했다……그한테 공산당, 공청단에 들었었는지 와 붉은 넥타이를 매었었는가고 물었다? 그는 붉은 넥타이를 매었었고 공청단에도 가입했었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 “자네한테 하나의 천기를 알려주지, 자네가 마음속으로부터 신에게 말하세 : ‘나는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하고 과거 손을 들고 선서한 맹세를 전부 폐기합니다.’ 자네는 탈퇴를 원하는가?” 그는 조금 망설이고 있었다. 당시 병실에는 또

여일 후 부기가 사라지고 정상을 회복하였다.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견증한 가족들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나의 “기사 회생” 의 기적은 온 림장 및 주변의 지역을 진동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파룬따파는 너무 신기합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

사부님께서 나에게 피를 바꾸어 주셨다

어느날 나의 코에서 갑자기 출혈하였는데 것가락 만큼 실한 피줄기가 계속 밖으로 흘러 내려 이쪽 코구멍을 막으면 다른 한쪽 코구멍에서 밖으로 흘러 내렸고 두 코구멍을 모두 막으면 입에서 밖으로 뿜어 나왔다. 깜짝 놀란 아내는 의사를 찾으려다 나를 병원에 보내려 하였다. 나는 이것은 사부님께서 나에게 피를 바꾸어 주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아내에게 알려주었다 : “별일 없으니 두려워 하지 말아요.” 피는 한참동안 흘러 족히 반 세수대야만큼 되여서야 비로서 멈추었다. 집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어지럽지 않나요? 나는 어지럽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얼굴을 씻고 평소대로 일을 하였다.

똑 같은 일이 2년 내에 7번 발생했고 2014년 마지막으로 코피를 흘린 후 병은 철저히 나았다. 사부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는 사부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

구류소 소장은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좋습니다!”

파룬궁을 한동안 수련하고 나는 : 나의 생명은 파룬따파가 주었고 파룬따파가 나의 생명을 구하였다. 나는 이런 아름다움을 아직도 중공에 기만당하고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그들도 파룬궁이 중공에게 박해당한 진상을 알도록 해야겠다고 인식했다

2015년 4월 2일 나와 한 파룬궁 수련생은 유수시(榆树市) 토교자진(土桥子镇)에 파룬궁 진상자료를 발급하러 갔다가 중공의 거짓말에 기편되어 파룬궁을 오해하는 사람의 밀고로 그곳 파출소에 랍치되었다.

이 전에 나는 단설기 한근을 샀다. 구류소에서 매일 단설기 한조각만 먹은 나는 전후 20일 대소변을 보지 않았다. 나와 동시에 랍치된 그 파룬궁 수련생은 11일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는데 신체에 아무런 의상이

없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 여러 방면의 표현은 모두 그들을 탄복시켰다. 경찰과 같혀 있던 모든 사람들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은 참으로 보통이 아니다! 너무 신기하다! 고 여기며 다들 파룬따파가 좋다고 인정했다. 그중의 40여명 범죄 혐의자와 10여명의 경찰은 파룬궁의 진상을 알아들은 후 해외 탈당 사이트에 성명을 발표하여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소장은 일부러 와서 우리와 말했다: “만일 이후 우리 구류소에 다시 파룬궁 수련생을 보내오면 나는 꼭 그들을 선의로 대하겠습니다. 파룬궁은 정말 좋습니다!” ◇

목회의 풍자화 풍자 편집자



문/ 북경 파룬궁 수련생

큰 형수는 뜨락에 들어서자 크게 외쳤다:
“나는 온 강당에서 곱사등을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원래 어머님은 일찍 스스로 집에 돌아오셨군요 아! 어머님의 허리는 어찌 하여 곧게 평쳤나요?!”

“파룬궁은 1992년에 리훙쯔(李洪志) 선생이 장춘에서 전해 나왔다. 1992년 5월 13일부터 1994년 12월 21일까지 리훙쯔 선생은 선후로 중국 각지에서 모두 총 56차례 반을 꾸려 법을 강의하고 공을 전했으며 몇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직접 전수반에 참가하였고 가는 곳마다 모두 공을 배우는 자들의 열렬한 환영과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1994년 1월, 리훙쯔 선생님께서 천진에서 제1기 파룬궁 학습반을 꾸리시였다. 큰 형님과 큰 형수는 억지로 어머니를 데리고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그때 나의 어머니는 이미 73세였는데 몇십년의 피로와 병통으로 인

문가는 수술실에서 가장 선진적인 탐사(探丝)로 검사하면서 3시간 남짓 찾았는데 시중 CT와 사진에서 나타난 혈관 종양을 찾아내지 못했다. 두 전문가와 모든 의사들은 모두 매우 의상하다고 여겼다. 당시 나는 바로 알았다: 내가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를 읽어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었고 나를 도와 혈관종양을 없애 버리여 나는 새생명을 얻었다! 당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8~9명 친척은 의사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두 매우 놀랐고 또 매우 기뻤다!

이튿날 나의 정황을 검사하려 병실에 온 의사는 내가 병실에 없는 것을 보고 물었다: 환자는 어디갔습니까?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다: 산책하러 갔습니다. 내가 돌아오자 의사는 나의 이런 상황을 보고 매우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엄중한 병이 어찌 이렇게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기적입니다!”

내가 병원에 주원해서부터 출원하기까지 전후 일곱날이 였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나의 생명을 구해준 파룬따파 사부님의 은혜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 [문 / 산동성 룽구시 진치(金奇)]



깔아 부스러진 다리 절단할 필요 없게 되었다

문 / 할빈시 파룬궁 수련생



【망후이왕】 2012년, 나의 아들은 흑룡강(黑龙江) 대경시(大庆市)의 한 시멘트 판 공장에서 하나의 공정을 도맡고 70여명의 시공 일군을 거느리고 날마다 매우 분방히 보냈다. 5월의 어느날 그는 갑자기 전화로 나더러 될수 있는 한 빨리 그의 공지로 오라고 하였다. 마음속으로 깜짝 놀란 나는 그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가하고 물자 그는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빼를수록 좋다고 하였다.

구명 진언(救命真言)

【명후이왕】 나는 금년에 42살이며 산동성(山东省) 룽구시(龙口市) 사람이다. 2016년 2월 18일 정오, 나는 출근한 후 갑자기 사무 책상에 흔미되어 쓰러졌다. 동료들은 내가 잠자는 줄 알고 나를 몇번 부르면서 잠자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움지직이 않자 또 몇번 나를 흔들어 보고서야 내가 인사불성이 된 것을 발견하고 급히 몇 사람을 불러 중심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 지주막하출혈(蛛网膜下出血)인데 동맥 혈관 종양으로 인한 증상이므로 반드시 수술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리하여 나는 또 인민병원에 전이되었고 저문가의 진찰 결과는 중심병원과 같았다. 의사는 나의 가족하고 말했다: 병세가 매우 엄중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환자는 누워서 몸을 돌리지 못하며 움직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혈관 종양은 수시로 파열될 수 있기 때-

문에 외지의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흔들리여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본 병원에서 수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나의 정황을 여러 친척들에게 알려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나의 큰 고모는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으로 병원에 왔고 나의 정황을 보고 매우 조급해 하였다. 그때 나는 조금은 정신이 들어 있었다. 큰 고모는 나의 귀전에서 말했다: 오직 파룬따파 사부님께서만이 너를 구할 수 있다!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를 목독하고 머리가 아플 때도 견지하여 읽거야 한다. 나는 큰 고모의 말대로 반복적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를 읽었다.

이튿날 나는 제로(齐鲁) 병원에 전이되었다. 의사는 CT 검사와 산진에서 나타난 정황에 의거하여 몇일 관찰하고 다시 수술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이기간 나는 머리가 정신이 들면 바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를 읽었다. 수술하기 전 기적이 나타났다 : 두 전

해 등이 90도 넘게 굽혀져 목마저 곧게 펼 수 없었고 머리도 들 수 없었다. 온 몸의 병은 이미 고황에 들어 어떤 약물도 효과가 없었고 발에 신은 신발마저도 그녀한테는 무거운 부담과 고통으로 되였다. 일찍 절망에 빠진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기적이 발생하리라고는 더욱 믿지 않았다.

하지만 형님과 형수의 후의하에 어머니는 그들의 부추김을 받으며 파룬궁 학습반에 왔다. 리훙쯔 선생님께서 강단 위에서 설법하시는데 어머니는 귀가 멀어 무엇도 들을 수 없어 마음은 매우 조급했다. 리훙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지금 바로 그녀더러 듣게 한다.” 어머니는 이 말씀을 즉시에 들었다. 이로부터 귀는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들을수록 똑똑했고 들을수록 즐겨 들었으며 들을수록 리훙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느꼈다. 설법이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갑자기 자신의 키가 커진것 같아 나의 큰 형님한테 물었다: “나의 키가 커지지 않았니?” 큰 형님은 어머니를 보고 놀라하며 말했다: “키가 커진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곱사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아 또 곁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물었다: “나의 키가 커지지 않았나요?” 똑 같은 대답을 듣고서야 어머니는 비로서 믿었다. 곱사등이 곧게 펴졌다! 자신이 순간 38살의 젊은 시기로 돌아간 것 같은 어머니는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강당을 나섰으며 몇십년래 처음으로 병이 없는 기분을 느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의 부추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집에 돌아왔다. 땅에서 한창 즐거워 하고 있는데 큰 형수가 땅에 들어서자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온 강당에서 곱사등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는데 어머님은 스스로 일찍 집에 돌아오셨군요……아! 어머님의 허리가 어찌 곧게 펴졌나요? !”

얼마 지나지 않아 온통 백발이던 어머니의 머리는 륙속 검게 변했다. 그녀는 또 두차례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했다. 그리고 뜻밖으로 좌석이 없는 렬차에 비비여 아주 먼 장춘에 가서 전수반에 참가했다. 마중을 나온 사람은 말했다 : “ 외지에서 장춘에 온 사람들중 년세가 이렇게 많은 로인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학습반에 오자 어머니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리훙쯔 사부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일부 예쁜 녀기자들이 앞다투어 리선생님의 팔짱

을 끼려고 하였는데 리훙쯔 선생님의 그 어떤 녀기자로 하여금 난처함을 느끼게 하는 동작도 보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두 팔을 끼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보시고 마음속으로 몹씨 탄복하며 생각했다 : “이 기공사는 매우 정직하다. 이후 나는 이 사부님을 굳게 믿겠다.”

70여세의 난로한 어머니는 수련 후 참으로 젊음을 되찾은 것처럼 건강하고 활기찼다. 그녀의 기적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진감했으며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칭찬이 자자했다. 여러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은 너무 좋으며 리훙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다. ◇

의사는 놀라 외쳤다:

4대 불치병에 걸린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니!

문 / 샤오쥔(小君) 구술 간예(甘叶) 배합 정리

【명후이왕】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파룬따파가 나의 몸에서 창조한 기적이다: 첫번째 기적은 바로 나를 도와 4대 불치병에서 벗어났다: 두번째 기적은 바로 자폐증 환자인 나를 말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유쾌하던 녀자아이 대머리 “어린 중”으로 변했다

나의 동년은 주변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즐거웠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너무 짧았다. 나의 고난은 옥처럼 꽂다운 아름다운 얼굴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인과 이 도덕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화가 나의 전반생을 훼멸시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가 12~13살 때 하루는 나는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불량배를 만났다. 그는 과일칼을 나의 뒤 허리에 갖다 대면서 나더러 그를 따라 산으로 가자고 했다. 내가 가지 않자 그는 칼끝으로 나를 찔렀다. 이때 넷째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다. 이 불량배는 나의 뒤에

파룬따파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法輪大法) 라고도 하며, 1992년 5월 13일에 리훙쯔 선생이 중국 장춘에서부터 전해 나온 불가상승(佛家上乘)의 수련공법이고, 우주의 특성 “전, 쌓, 런(真、善、忍)”을 수련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5조의 느슨하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 **사람더러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은 하나의 매우 효과적인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공법이며 또한 하나의 숭고한 신앙이다. “전, 쌓, 런(真、善、忍)”에 대한 신앙은 사람을 성실, 선량하고 너그럽게 변화시킨다. 파룬궁은 돈 한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공을 가르치며, 배우는 자는 자유로이 오가며 명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가 있다. 1998년 국가 체육 총국은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동성의 의학계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거의 3.5만명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5번의 의학조사를 전개했다. 조사에서 파룬궁 수련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총 유효률은 98%로 나타났다.

● **사회에 복의(福益)하다** 파룬궁은 수련자에게 좋은 사람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힘써 도덕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1998년 하반년, 교석등 부분 전 인대 로간부들이 몇 달간 파룬궁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서 “파룬궁은 나라에든 인민에든 백가지 리로움이 있을 뿐 한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념말에 정치국에 조사보고를 바쳤다.

● **파룬따파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파룬궁의 서적은 30여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 발행하였고 아울러 파룬따파 사이트 (falundafa.org)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리훙쯔 선생과 파룬따파가 받은 여러 나라 정부의 여러 가지 표창, 지지 의안과 편지는 3000 건을 초과했다. “전, 쌓, 런(真、善、忍)”의 신앙은 세계 각 민족 민중들의 애대화 존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대륙 한곳에서만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 ◇



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매우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나의 몸에서 기적을 견증하고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견증했다! 수련 후 내가 제일 먼저 빈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다. 나는 “천, 쌐, 런(真、善、忍)”의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면서 주동적으로 시어머니와의 원한을 풀었고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건강하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하는 나를 보고 매우 후회하였다.

후에 아이도 나에게 주었고 십여년이 지난 지금 나는 아들에게 혼사를 치러주었다.

나의 몸에서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한 의사

나는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하여 경찰에 랍치되었다. 그번 랍치되었을 때 박해로 나의 몸에는 병 증세가 나타났다. 경찰은 나를 간수소로 랍치하여 박해하려 했지만 간수소에서 접수하지 않아 또 나를 병원에 보내였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나는 늘 병원에 입원하였기에 병원의 단골손님이였다. 1999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의 병은 완쾌되어 더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의사들은 내가 일찍 인간세상에 없는 줄 알았다. 이번에 병원에 보내온 후 한 의사는 나를 알아보고 놀라 하며 외쳤다: “그녀는 4대 불치병 환자인데 어찌하여 아직도 살아 있나요! 그녀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경찰은 말했다: “그녀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다만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어요. 그녀가 이전에 병이 있던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모두 나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았는데 이번엔 믿어요” 의사들은 나의 이 4대 불치병의 어떤 병도 모두 죽을 병이므로 오늘까지 살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파룬따파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신체는 금방 회복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구해주고 돈 한푼도 받지 않고 다만 나의 그 선을 향하는 마음만 요구하셨다. 내가 기쁘게 파룬따파를 얻고 고목에 꽂이 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파룬따파가 나를 고난속에서 구해준 행복과 희열을 더욱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이다! ◇

숨어 소리를 내지 못하며 소리 치면 찔러 죽이겠다고 나를 위협했다. 나는 눈을 뺀히 뜨고 넷째 오빠가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도리여 오빠한테 감히 구원을 청하지 못했다. 넷째 오빠는 집에 돌아갔다 잠깐 사이에 다시 돌아왔고 불량배는 이제야 비로서 놀라 도망갔다. 집에 돌아온 후 친인들은 나에게 이 사실의 경과를 똑똑히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나와 그 어린 불량배가 사귄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온 집식구들은 모두 나를 모함하면서 변명하거나 반박할 여지 없이 다짜고짜로 나를 엎어 누르고 나의 긴 머리태를 자르고 대머리로 깎아 버렸다. 나는 대머리 “어린 중”이 되여버렸다. 그 순간 나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녀자아이로부터 대머리 “어린 중”으로 되여버려 나는 실성 통곡하며 죽도록 울었다. 나는 대번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였고 이로부터 나는 자신을 봉폐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부모와 오빠하고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웃음과 즐거움을 잊었다.

이뿐만 아니라 부친은 다시는 나를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친인한테 집에 갇히여 친구을 잃고 자유를 잃었다. 이웃들은 배후에서 손가락질 하며 나를 어릴적부터 나쁜 것을 배우고 바른 길을 걷지 않아 부모들이 비로서 나를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12~13살짜리 아이는 한창 천진란만한 년령이지만 나는 오히려 단정하지 못하다는 나쁜 명성을 뒤집어썼고 나의 마음은 고해(苦海)로 변했다. 나는 속이 짱더미가 되여 단지 한 글자만 생각했다: 죽자! 하지만 네번 자살하여도 지옥에서는 나를 받아주지 않아 모두 구급되여 살아났다.

시집가 불치병에 걸려 설상가상인 “벙어리 녀”

시집갈 나이가 되여 집에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남자 친구를 찾아 주어도 나는 모두 동의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언어 장애가 있기에 내 마음대로 로동자를 찾았더니 집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혼하는 그날 친정에는 후행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도 신부가 되는 기쁨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고 친정에서도 랭담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더욱 화가났다. 온 집식구들은 모두 나를 벙어리라며 괴롭혔다. 시동생 시누이도 나를 때렸고 일을 하지 않으며 혼외 정

사가 있는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때는 산옆에서 살았으므로 내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 봉지에 18푼짜리 된장도 살 수 없어 소금물에 채소를 담가 먹는 수밖에 없었다.

생존하기 위하여 나는 파마를 배워 스스로 머리방을 꾸렸는데 고객이 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떤 머리 모양의 값은 얼마인 것을 적어서 벽에 붙였다. 손재주로 일을 하는 나는 파마를 잘하여 고객은 줄을 서 기다렸다. 돈을 벌어서는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았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아들은 아직 어리여 나는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삐 돌아쳤다.

과도한 피로, 계다가 두번이나 독약을 먹은 탓으로 나의 신체는 심한 손상을 받았다. 머리방을 꾸리고 휴식일이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 나의 신체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아들이 1~2살 때 나의 병은 아주 심했다. 병이 발작할 때면 두 다리가 마비되고 숨이 막혔다. 후에 또 신경마비에 걸렸다. 29살 때 나는 또 뇌출혈에 걸렸다. 이 때 돌발성 심장병은 더욱 심해졌다. 마지막엔 또 유방암, 뇨독증, 십이지장도 병에 걸려 나는 거히 폐인이 되여버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바보라 했고 말을 하지 않으며 단순하고 명청한 내가 후반생에 반신불수가 되여 그녀의 아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려웠다. 나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어머니는 남편더러 나와 리혼하라고 했다. 내가 병원에서 나오니 집의 물건들은 나뉘여져 있었다. 콩기름, 밀가루와 옷은 죄다 가져갔고 내가 스스로 고생스럽게 지은 집도 돌아가 살지 못하게 했다. 그때의 나는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가정이 없고 집이 없으며 아이마저 빼앗아 갔으니 나는 설상가상으로 남은 것은 유방암, 뇨독증, 십이지장 출현, 엄중한 심장병뿐이었다. 의사는 이 “4



대 불치병”은 어느 한가지 병도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운스럽게 고덕 대법을 만나 고목에 꽂이 핀 불운한 사람

1999년 8~9월 기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하늘에서 파룬이 나타났는데 큰 것은 엄청 크기로 한쪽 벽보다 더 컸고 작은 것은 손톱만큼 컸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남동생이 오더니 한 꾸러미의 책을 나에게 주었다. 그 중 한권의 책(파룬궁 서적) 앞표지는 푸른색이고 중간은 파룬(法輪)이였는데 꿈속의 것과 똑 같았다.

책을 펼쳐보니 나는 많은 글자를 알지 못했고 조급한 나는 울기만 하였는데 나는 책에서 칠색 채색 빛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울고 울다가 책에 업드려 잠들었다. 잠에서 깨여난 후 나는 놀랍게도 책속의 글자를 기본상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간단한 뜻도 알게되어 나는 정말 기뻤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너무

신기했다! 책을 본 후 일생동안의 미혹은 모두 답안을 찾았고 나는 일생동안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었고 이렇게 격동된 적도 없었다. 파룬따파를 배운 후 나의 마음속에 반평생을 깔려 있던 연무가 모두 사라졌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하는 나의 그 마음은 그렇게도 후련했다!

하늘은 마치 단번에 그처럼 푸르게 변한것 같고 공기는 순식간에 시원하게 변한것 같아 나의 마음은 너무 상쾌하고, 너무 달콤했다! 나는 어릴적부터 수련하고 싶어 출가하려 하였으나 어데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인연이 아직 닿지 않았다고 했다. 기쁘게 파룬불법을 얻어 나는 마침내 사부님을 찾았다! 나는 사부님이 있게 되였다!

나의 그런 병들은 금방 다 나았고 나의 머리방은 아주 흥성홍성하였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내가 원래 만병에 시달렸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모두 파룬궁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파룬따파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

